

#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무더위에 지치는 8월, 덥다고 마냥 지쳐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오늘도 니고데모씨,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묻습니다.



Q1. 어느 날 아이들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아니?”하고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다 하여도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교육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얼마 전 은하수가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맑은 밤 하늘을 올려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장엄한 아름다움에 또 다시 압도되면서 대우주 앞에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지요. 그 생각 끝은 자연히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타끌보다 못한] 저를 생각”하시는 것일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대답하긴 쉽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임양아들이 실망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육친을 확인하려는 것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는 인간의 영원한 질문입

니다. 모든 시대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예술에 그 질문이 묻어 있지요.

성경은 이 질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여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하실 만큼 중대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뚝뚝” 창조하신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험”이었다고 까지 쓴 적이 있지요. 사람을 세상 전체를 맡아 다스리고 돌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며 정원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할 일꾼입니다.

Q2. 아이들에게는 ‘다스리다’라는 말이 ‘내 뜻대로 하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봅니다. ‘말긴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기독교는 환경친화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인간을 만물의 자의적 지배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계획과 질서를 세상에 부여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창조주의 법도를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청지기 역할을 바로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 2: 15 말씀처럼 자연을 “돌볼” 책임과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스림도 자연을 돌보고 가꾸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현대 문명의 특성인 지배, 착취, 탐욕, 낭비와 파괴는 정당화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주의자의 주장처럼 기독교 문화관에 환경파괴적인 세계관이 담겨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무를 솟아나게 하거나 자라게 하지 못하지만 가꿀 수는 있습니다. 꽃을 만들지 못하지만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와 역사를 일구어가는 동역자라고 했지요. 이렇게 볼 때 진화론이 말하는 한가한 원시인의 모습은 허구임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시작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진 “일꾼”이었으니까요.

자연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문화는 창조의 개발**

문화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이 그의 뜻대로 펼쳐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이해력과 같이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에 기초하여 재능과 솜씨를 발휘하여 자연을 개발함으로써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가 가꾸고 돌보라는 문화명령을 바로 수행하려면 창조 질서와 사물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위함입니다. 세상을 탐사한다는 일은 물론 지적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요. 세계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일은 직관적 예지나 감성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노예 출신이었으나 훗날 “땅콩박사”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는 동족인 흑인들을 돕기 위해 농학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는 오랜 목화농사로 황폐화된 땅의 회복을 위해 땅콩 심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해서 많이 생산된 땅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더 큰 숙제였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땅을 만드신 이유와 농사를 하계하신 이유를 물었더니 “네가 묻기에 너무 큰 질문들”이라는 답을 주셨답니다. 그러나 땅콩은 왜 만드셨느냐는 물음엔 “적절한 질문”이라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부여잡고 땅콩을 만드신 이유와 씨름한 결과 땅콩 버터를 비롯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것이 문화의 기초입니다.



**Q3. 다스림의 다른 말은 '책임'이네요! 아이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구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참 특별한 존재네요.**

성경이 인간의 독특성에 관해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원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에 매여 살지 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생존 본능을 거슬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닫혀진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인격적 결단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해서와 주변 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그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에 기질은 타고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의지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 타고난 급한 성격이나 분노, 음욕, 나쁜 환경으로 변명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자유와 의지적 결단을 통해 만들어진다 고 봐야 합니다.

사람은 흠이지만 죽으면 그만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 속에 살면서도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자유를 가진 인격으로 지음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본능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만 의지로 넘어서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죽음도 무릅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 영원을 내다봅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NVP) 등이 있다.



#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정문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실재(Reality)를 대할 때, 심판관이 아니라 철저히 학생의 자세로 열린 태도를 품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그 진리를 죽였는가』 12쪽.

책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저자인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회심 이후 그의 삶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충성한 산 제자의 삶이었으며, 그의 저술들은 그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뉴비긴은 1909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대학 퀸즈 칼리지에 입학할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기독교 학생운동(SCM)에 참여하면서 회심하게 되었고, 케임브리지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936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 칸치푸람으로 파송되어 11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1959년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총무직을 수락하여 잠시 인도를 떠났지만,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뉴델리 회의에서 IMC와 WCC의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WCC 부총무와 전도위원회 책임자가 되었고, 1965년에는 다시 남인도교회로부터 마드라스의 주교로 임명받아 10년을 더 사역하였다.

1974년, 35년의 인도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뉴비긴은 영국이 선교지보다 더 사역하기 어려운 이교도 사회로 변해버린 현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서구 사회를 선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선교적이며 분석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199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저술 활동과 강연, 목회 사역을 하였다.